

독신의 시간사용과 여가활용에 대한 탐색적 연구*

: 미혼 및 기혼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on the Single People Time Use and Leisure Behavior

: A comparison of single people an unmarried group and a married group

송호대학 유아교육과

겸임교수 윤 소 영**

Dept. of Preschool Education, Songho College

Additional Professor : Yoon, So-Young

〈Abstract〉

In this study, I analyzed single people time use and leisure behavior. I have compared patterns of time use of the single people who completed a survey for this study with the data from Time Use Survey(Korea National Statistics Office, 1999). The survey participants included 160 single people who were thirty- to forty-years-old and who were living alone. The data from the Time Use Survey by NSO contained 2,004 married people cases and 30,155 unmarried individuals case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single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were not especially anti-marriage; they simply have not been married yet and were living in a one-person household. Second, single people spent more time at work and less time for leisure and socializing than two comparative groups. Third, single people spent more time for household labor than other groups, and the only exception was the married female group. There was no gender difference in the time spent at household work. Finally, single people tended to spend their leisure time with passive activities such as reading a newspaper or a magazine, watching television, and listening to the radio.

▲ 주요어(Key words) : 독신의 시간사용(the single's time use), 독신의 여가활동(the single's leisure activities), 소극적 여가(passive leisure)

1. 문제제기

2001년 5월 미국 인구통계국의 보고에 의하면 미국의 가정 중 전통적인 핵가족 - 즉 결혼한 남녀와 자녀들로 이루어진 가정 - 의 비율이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실제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커플의 숫자는 거의 550만쌍에 달하고 여자 혼자서 가장 노

릇을 하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가정이 미국 전체 가구 중 7.2%, 남성이 혼자 자녀를 키우는 가정도 2.1%이다(세계일보 2001. 5. 24). 이러한 실태는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경험하는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급속한 해체 현상을 말해주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변화 중 가장 현저한 양상은 '1인 가구'의 증가로 나타난다. 통계청(2001)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 나라 1인 가구의 수는 계속 증가하여 1980년대와 비교해 3배 정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0년 현재 전체 14,312천 가구 중 15.5%에 해당하는 약 2,218천 가구가 1인가구인 것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세 미만 1인 가구가 25.2%(561천 가구)

* 본 연구는 한국가정관리학회의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며, 한국가정관리학회 2002년 춘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주저자 : 윤소영(kihysy@hanmail.net)

로 가장 많지만, 30세 이상 연령에서도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²⁾. 이는 30세 이상의 결혼하지 않은 미혼독신 인구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만혼과 독신주의화의 영향력으로 평가된다.

이때 독신이라 함은 일반적으로는 홀로 사는 사람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독신'의 사전적 의미는 '혼자 몸'(獨身)을 의미하며, ① 형제, 자매가 없는 몸 ②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는 두 가지를 뜻하지만, 일반적으로 독신이라 함은 후자의 의미로 사용된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독신이라고 한다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혼하거나 배우자를 사별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보통 독신이라고 칭할 때는 그 중 결혼하지 않은 미혼 남녀를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협의로는 '혼자 사는 미혼자'를 가리킨다(손주희, 1996).

독신의 수가 증가한 것 이상으로 독신과 관련된 많은 이슈가 제기된 것도 최근의 변화중 하나이다. 독신의 삶에 대해 '화려하고 구속받지 않는 무한한 자유'로 묘사되고 있으며, '싱글족', '코콘 하우스(cocoon house)³⁾', '개전(個電)제품⁴⁾' 등 독신과 관련된 새로운 개념이나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독신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에세이나 단편 취재 거리에 불과했던 것도 사실이다. 화려한 싱글의 하루 일과가 같은 연령대의 기혼집단이나 가족들과 함께 동거하는 미혼집단과 어떻게 다른지, 실제 독신들의 시간사용은 다양한 여가활동을 포함하고 있는지, 독신들은 혼자 살면서 진정한 자유로움을 누리는지 등에 대해 매우 단편적인 지식만 알려져 있다.

최근 한국여성개발원(2002)에서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의 일부분으로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청장년 1인 가구'를 다룬 연구는 있었지만, 1인 가구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해서 미혼 독신이나 노인 단독 가구 등의 세부적인 특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단독 거주공간을 확보한 1인 가구 가운데, 연령범위를 30-40대로 제한하여 그들의 시간사용과 여가활동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또한 독신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독신집단과 같은 연령대인 30-40대 기혼남녀 및 미혼남녀의 시간사용 및 여가활동을 비교·제시하며, 특히 이들의 특성이 남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2000년 현재 독신인구 중 30-39세는 18.7%, 40-49세는 13.3%, 50-59세는 11.1%, 60-69세는 15.8%, 그리고 70세 이상은 16.0%이며, 특히 1995년에서 2000년까지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40-49세로 79.9%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3) 코콘은 누에고치라는 뜻으로, 코콘하우스는 필요에 의해 잠만자는 주거공간을 일컫는다.

4) '개전(個電)'이란 개인이 쓰는 제품이라는 신조어으로써, 가정에서 가족들이 사용한다는 '가전(家電)'의 개념과 대비된다.

II. 미혼 독신의 시간사용 및 여가활동에 대한 일반적 고찰

독신의 라이프 스타일 중 가장 큰 변화로 '싱글들의 주말은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디자인하고 일주일의 피로를 풀어 재충전할 수 있다'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의미에서 독신들의 삶을 흔히 '화려한 싱글'로 표현하기도, '자유'의 대명사로 일컫기도 한다. 독신생활에 필요한 '독신의 필수조건'으로는 취미를 가져야 하고 자기에게 맞는 일과표를 짜야하며, 열린 마음으로 주어진 시간을 마음껏 요리해야 함을 권장(손주희, 1996; 김애순, 1994)하기도 한다.

또한 싱글족인 미혼 독신자들에게는 '취미'로서의 레저나 여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파티나 인터넷 모임을 통해 인간관계를 넓혀나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네티즌(netizen)의 60%가 독신이고 독신자의 25%가 온라인 데이팅 사이트(date.com/Match.com/dreammate.com/Yahoo의 ClubConnect 등)를 이용하고 있으며(한국경제신문, 2002. 2. 26), 우리나라에서도 싱글족의 파티와 여행레저를 위한 인터넷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다(주간조선, 2002. 1. 10). 파티는 클럽프렌즈(clubfriends.co.kr), 세이큐피드(saycupid.co.kr), 파티즌(partizen.com) 등이 온라인으로 공지하고 off-line에서 모임을 갖는 것으로 인지도가 높으며, 다국적 리조트업체인 클럽메드(clubmed.co.kr)에서는 미혼 젊은이들을 위한 싱글파티를 여행상품으로 내놓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용률이 높은 daum 카페에서도 '독신'으로 검색된 카페만도 187건이나 되며(2002년 5월 현재), 이중 회원수가 가장 많은 사이트(cafe.daum.net/sololist)는 5,751명이 회원으로 등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여성개발원(2002)의 연구에 의하면 30대 미혼들이 독신생활을 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은 '직장생활(28.8%)'였다는 사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들은 현재 싱글이지만 독신주의자는 아니고 '일' 때문에 결혼이 늦어진 '비혼(非婚)족'에 가깝다. 이들은 자신의 일에 몰두해 있어 둘이 아닌 하나의 삶을 즐기고, 최적의 배우자를 찾기까지 결혼을 보류한 상태라고 진단된다. 따라서 독신자들은 자유를 누리면서도 일이라는 구속 때문에 결혼이 늦어진 경우도 많으리라 짐작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신자들의 시간분석을 통해 과연 여가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있는지, 자유로운 일과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기로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협의의 독신을 가리키는 '혼자 사는 1인

가구'로 한정한다. 그리고 독신의 생활양식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많은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한국여성개발원, 2002), 30-40대 연령의 남녀로 제한한다. 따라서 거주상태를 중심으로 결혼하지 않았거나(148명), 사별(3명) 또는 이혼(9명) 등 현재 배우자 없이 혼자 살고 있는 1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독신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지는 독신 생활의 전반-현황, 심리적 구조, 가족관계, 경제적 측면, 주거선호, 시간 및 여가실태-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그 중 개인적인 특성(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등 포함)과 시간 및 여가활용 측면만 본 연구에서 분석하기로 한다.

시간사용과 관련하여 일, 가정관리(평일과 휴일), 교체 및 여가활동에 사용한 시간을 질문하였으며, 여가활동은 파티나 게임을 통한 교체활동, 신문·잡지·TV·라디오 등 대중매체이용, 학원이나 인터넷 강좌를 통한 학습, 종교활동, 영화 및 연극 관람, 가장 즐겨하는 스포츠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으로 구분하여 그 시간량을 개방형으로 질문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30-40대 독신남녀의 시간사용실태와 여가활동 조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비교집단의 시간사용 자료를 함께 분석한다. 비교를 위해 30-40대 연령의 결혼하지 않은 미혼남녀⁵⁾의 시간조사결과(2,004사례)와 30-40대 연령의 기혼남녀의 시간조사결과(30,155사례)를 함께 분석하였으며, 이는 통계청의 「1999 생활시간조사」⁶⁾의 원자료에서 분석되었다.

개인적인 특성 및 각 생활영역의 시간량 분석은 빈도와 백분율 및 평균값으로 구했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을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IV. 분석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비교

30-40대 독신가구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비교집단인 결혼하지 않은 30-40대 미혼집단과 기혼집단의 일반적 특성을 함께 비교해 보고자 한다. 미혼집단과 기혼집단은 통계청의 「1999 생활시간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 <표 2>와 같다.

결혼하지 않은 미혼집단은 전체 2,004사례 가운데 74.4%가 남성이 보고한 사례이며, 86.4%는 30대 집단이었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전체 43%로 가장 많았지만 중학교 졸업자도

22.5%나 되었다. 반면 기혼집단은 전체 30,155사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많았으며, 30대 연령층이 40대 연령층보다 5%정도 많았다. 교육수준은 미혼집단과 비교해 고등학교 졸업자는 더 많았으나 전문대졸 및 대졸 이상은 훨씬 적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한편, <표 3>은 본 조사에서 분석된 독신집단의 일반적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전체 160명의 조사대상자 중 여자(51.2%)가 남자(48.8%)보다 약간 더 많았으며, 40대 독신자(23.1%)에 비해 30대 독신자(76.9%)가 훨씬 많았다. 이들은 대학교 졸업자(61.9%)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학원 이상(30.6%), 고등학교 졸업자(7.5%) 순으로 나타났고, 중학교 이하의 학력수준은 한명도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제시한 같은 연령대의 미혼집단이나 기혼집단과 비교해 훨씬 높은 교육수준을 나타낸 것이며, 여성개발원(2002)의 청장년 1인 가구의 실태조사에서 고등학교 졸업자(33%)가 대부분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자 가운데 57.6%가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등의 직업 분포를 보인 것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2. 생활시간의 비교

1) 미혼집단의 시간사용

결혼하지 않은 30-40대 미혼 남녀의 시간사용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4>에 제시된다.

30-40대 미혼들은 수면을 포함한 개인유지활동(수면, 식사 및 간식, 개인관리, 의료적 건강관리 등의 활동 포함)을 하루 평균 10시간 22분 사용하며, 5시간 25분 일(고용된 일·자영업, 무급가족종사일,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일, 구직활동, 일관련 물품구입, 기타 일관련 행동 포함)하고 48분간 가정관리 및 가족돌보기 활동(음식준비 및 정리,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집 관리,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가정경영, 기타 가사일,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배우자 보살피기,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그 외 가족 보살피기 등의 활동 포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에 참여하거나 봉사활동(이웃 및 친분있는 사람 돕기, 지역공동체 활동, 사회참여 활동, 자원봉사 활동 포함)에는 하루 4분을, 교체 및 여가활동에는 5시간 25분을 사용하였다.

여가활동 중에는 TV나 라디오와 같은 대중매체 이용시간이 가장 많아서 하루 평균 2시간 37분을 사용하며, 취미활동에 1시간 6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활동과 관련된 이동시간은 1시간 50분이다.

성별에 따라서는 개인유지활동, 가정관리 및 가족보살피기 활동, 참여 및 봉사활동, 교체 및 여가활동 등에서 남녀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30-40대 미혼남자들은 여자들보다 교체활동 및 여가활동에서 11분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30-40대 미혼여자들은 남자들보다 개인유지활동에서 6분, 가정관리활동에서 1시간 16분, 봉사활동에서 3분 더 많이 사용하였다.

5) 미혼이란 결혼상태에 근거해서 결혼하지 않은 남녀를 포함하므로, 다른 가족원과 함께 사는 미혼들도 모두 포함한다.

6) 1999년 통계청에서는 전국 만 10세 이상 46,109명을 대상으로 한 단위 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1> 미혼 집단의 일반적 특성

(N=2,004)

변	수	빈 도	백분율(%)
성 별	남 성	1,490	74.4
	여 성	514	25.6
연 령	30 대	1,732	86.4
	40 대	272	13.6
교육수준	중 학 교 졸	451	22.5
	고 등 학 교 졸	862	43.0
	전 문 대 졸	252	12.6
	대 졸 이 상	439	21.9

자료 : 통계청(2000), 「199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표 2> 기혼 집단의 일반적 특성

(N=30,155)

변	수	빈 도	백분율(%)
성 별	남 성	14,213	47.1
	여 성	15,942	52.9
연 령	30 대	15,806	52.4
	40 대	14,349	47.6
교육수준	중 학 교 졸	9,022	29.9
	고 등 학 교 졸	14,431	47.9
	전 문 대 졸	2,269	7.5
	대 졸 이 상	4,433	14.7

자료 : 통계청(2000), 「199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표 3> 독신 집단의 일반적 특성

(N=160)

변	수	빈 도	백분율(%)
성 별	남 성	78	48.8
	여 성	82	51.2
연 령	30 대	123	76.9
	40 대	37	23.1
교육수준	고 등 학 교 졸	12	7.5
	대 학 교 졸	99	61.9
	대 학 원 이 상	49	30.6
직 업	전 문 직	48	30.0
	관 리 직	2	1.3
	사 무 직	42	26.3
	자 영 업	7	4.4
	기 술 직	14	8.8
	판매 · 서비스직	10	6.3
	무 직	13	8.1
기 타	24	15.0	

<표 4> 행동분류에 따른 미혼의 시간사용 : 남녀 차이 분석

(시간 : 분 / 1일)

행동분류	집 단	전체 (평균)	t 검증				t 값
			남성		여성		
			평균	S.D.	평균	S.D.	
1. 개인유지		10 : 22	10 : 40	12.32	10 : 46	13.40	- 4.8*
2. 일		5 : 25	5 : 49	25.04	4 : 16	24.84	7.28
3. 가정관리 및 가족 보살피기		0 : 48	0 : 29	5.54	1 : 45	10.37	-15.97***
4. 참여 및 봉사활동		0 : 04	0 : 04	3.06	0 : 07	4.27	- 1.42***
5. 교제 및 여가활동		5 : 25	5 : 28	20.90	5 : 17	19.03	1.08*
① 교제활동		0 : 47	0 : 48	7.11	0 : 44	6.14	1.29***
② 대중매체 이용		2 : 37	2 : 36	13.26	2 : 40	13.18	- 0.65
③ 일반인의 학습		0 : 20	0 : 17	8.37	0 : 22	8.03	- 0.91
④ 종교 활동		0 : 09	0 : 06	4.96	0 : 19	7.12	- 3.60***
⑤ 관람 및 문화적 행사 참여		0 : 02	0 : 02	1.76	0 : 02	1.72	- 0.33
⑥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0 : 21	0 : 23	5.32	0 : 14	3.72	4.23***
⑦ 취미 및 그의 여가활동		1 : 06	1 : 10	9.45	0 : 50	7.38	5.34***
⑧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		0 : 03	0 : 02	1.21	0 : 06	2.24	- 3.49***
6. 이동		1 : 50	1 : 53	8.03	1 : 39	7.95	3.66

* p < .05, ** p < .01, *** p < .001

자료 : 통계청(2000), 「199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표 5> 행동분류에 따른 기혼의 시간사용 : 남녀 차이 분석

(시간 : 분 / 1일)

행동분류	집 단	전체 (평균)	t 검증				t 값
			남성		여성		
			평균	S.D.	평균	S.D.	
1. 개인유지		10 : 06	10 : 14	11.03	9 : 59	10.26	12.34***
2. 일		4 : 55	6 : 32	23.69	3 : 30	24.07	66.39*
3. 가정관리 및 가족 보살피기		2 : 47	0 : 33	6.30	4 : 47	16.56	-179.40***
4. 참여 및 봉사활동		0 : 03	0 : 02	2.37	0 : 03	2.77	- 4.13***
5. 교제 및 여가활동		4 : 22	4 : 36	18.06	4 : 09	15.55	13.60***
① 교제활동		0 : 54	0 : 50	7.43	0 : 57	6.98	- 7.12***
② 대중매체 이용		2 : 14	2 : 20	12.28	2 : 09	10.64	8.50***
③ 일반인의 학습		0 : 05	0 : 06	4.44	0 : 04	2.87	5.12***
④ 종교 활동		0 : 11	0 : 05	3.44	0 : 16	5.98	-19.67***
⑤ 관람 및 문화적 행사 참여		0 : 01	0 : 01	1.27	0 : 01	1.34	- 0.89***
⑥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0 : 17	0 : 22	5.87	0 : 12	3.57	17.95***
⑦ 취미 및 그의 여가활동		0 : 38	0 : 49	7.03	0 : 28	4.89	29.47***
⑧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		0 : 02	0 : 01	0.90	0 : 02	1.24	- 8.07***
6. 이동		1 : 46	2 : 02	9.09	1 : 31	7.28	31.52***

* p < .05, ** p < .01, *** p < .001

자료 : 통계청(2000), 「199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표 6> 행동분류에 따른 독신의 시간사용 : 남녀 차이 분석

(시간 : 분 / 1일)

행동분류	집 단	전체 (평균)	t 검증				t 값
			남성		여성		
			평균	S.D.	평균	S.D.	
1. 일		7 : 34	8 : 10	241.21	6 : 59	237.53	1.89
2. 가정관리(평일)		0 : 56	0 : 44	55.76	1 : 07	54.22	- 2.69
가정관리(휴일)		2 : 06	1 : 40	94.77	2 : 31	95.97	- 3.37
3. 교제 및 여가활동		3 : 04	3 : 08	127.27	3 : 02	140.57	0.30
① 교제활동(파티 등)		0 : 16	0 : 21	27.33	0 : 11	18.76	2.78 **
② 대중매체 이용(신문,잡지,TV,라디오)		1 : 04	1 : 00	64.77	1 : 09	70.36	- 0.84
③ 일반인의 학습		0 : 12	0 : 10	21.29	0 : 14	27.36	- 0.90 *
④ 종교 활동		0 : 12	0 : 06	16.69	0 : 18	69.38	- 1.52 *
⑤ 관람		0 : 11	0 : 11	13.38	0 : 11	17.38	- 0.11
⑥ 스포츠활동		0 : 23	0 : 24	21.89	0 : 23	24.82	0.14
⑦ 취미 및 그의 여가활동		0 : 20	0 : 25	43.54	0 : 15	22.04	1.79 *
⑧ 일이나 친목을 위한 음주		0 : 26	0 : 31	34.77	0 : 21	44.34	1.67

* p < .05, ** p < .01, *** p < .001

특히 교제 및 여가활동에서 미혼 남녀 모두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시간이 가장 많으며, 가장 적은 활동으로는 남녀 모두 관람 및 문화적 행사에 참여하는 시간이었다. Firestone & Shelton (1988)와 한경미·황덕순(1990)의 연구에서 여가를 적극적인 여가와 소극적 여가로 분류한 것을 기준으로 할 때, 30-40대 미혼 남녀들은 적극적인 여가활동보다는 소극적인 여가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여겨진다.

2) 기혼 집단의 시간사용

통계청의 「1999 생활시간조사」에서 기혼 30-40대 남녀의 시간사용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5>에 제시된다.

우리 나라 기혼 남녀는 하루 평균 개인유지활동에 10시간 6분을 사용하며, 4시간 55분 일하고, 가족을 돌보거나 가정일에 2시간 47분을 사용한다. 사회봉사활동이나 참여활동을 위해서는 3분을 사용하며, 교제 및 여가활동을 위해서는 4시간 22분 사용한다. 모든 활동과 관련된 이동시간은 1시간 46분이다.

30-40대 미혼집단과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차이는 가정관리 및 가족돌보기 시간이 1시간정도 많으며, 상대적으로 교제 및 여가활동시간이 1시간 3분 정도 적은 것이다.

성별에 따른 평균시간의 차이는 모든 행동에서 나타났다. 30-40대 기혼 남자들은 여자들 보다 개인유지활동, 일, 교제 및 여가활동, 이동 등의 영역에서 유의하게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으며, 30-40대 기혼 여자들은 가정관리 및 가족돌보기, 참여 및 봉사활동에 유의하게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다. 특히 남자와 여자의 시간차이가 가장 많이 난 것은 가정관리 및 가족돌살 피기 영역으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4시간 14분 더 많이 사용하였다. 이는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연령대인 30-40대의 기혼여성들의 가정내 역할부담을 설명해 준다.

기혼 남녀의 여가활동 내용에 있어서도 모든 영역에서 남녀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30-40대 기혼 남자들은 여자들과 비교해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학습시간, 스포츠 및 레저활동시간, 취미 및 기타 여가활동시간이 더 많았다. 30-40대 기혼 여자들은 교제활동시간, 종교활동시간,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시간이 더 많았다. 그러나 남녀 모두 여가활동 중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시간이 가장 많이 나타나, 미혼자들과 마찬가지로 소극적인 여가활동지향을 나타낸다. 남녀 모두 관람 및 문화적 행사 참여를 위한 시간사용은 하루 평균 1분정도 되었으며, 이것은 미혼자들보다도 평균 1분이 더 적었다.

3) 독신 집단의 시간사용

30-40대 혼자 사는 독신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시간사용 및 여가활동에 대한 결과는 <표6>에 제시된다.

30-40대 혼자 사는 독신 남녀들은 하루 평균 7시간 34분 일하며, 평일에는 56분 가정일에 투자하고 휴일에는 2시간 6분 투자한다. 주말을 이용한 교제 및 여가활동으로는 신문이나 잡지, TV, 라디오 등을 이용하는 대중매체 이용시간이 가장 많아 1시간 4분을 사용하며, 교제활동, 학습, 종교활동, 관람, 스포츠활동, 취미활동, 음주 등의 활동은 평균 10분대에서 20분대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교제 및 여가활동을 위한 하루 평균 사용시간은 3시간 4분에 이른다.

이러한 결과는 독신 남녀들이 기혼집단이나 미혼집단과 비교해 일에 투자하는 시간이 현저하게 많으며,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은 적게 나타난 것이다. 조사대상자의 일에 대한 사용시간 분포를 살펴보면 하루 평균 10시간 일하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아 30%(48명)나 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하루 8시간 일하는 사람

의 비율이 18.8%(30명)이었다. 특히 23명의 독신자들은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2명은 하루 15시간을 일한다고 하였다. 이는 앞서 밝힌대로 이들 독신 남녀가 '독신주의'를 고집한다기 보다는 일 때문에 현재 비혼(非婚)인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본 조사에서 질문한 "앞으로 결혼에 대한 계획"에 대해 18명(11.3%)만 전혀 결혼 계획이 없고, '적당한 대상이 나타나면 한다'는 69.4%(111명), '언젠가 반드시 한다'는 18.1%(29명)의 응답률을 보인 사실로도 뒷받침된다.

교제 및 여가활동시간이 미혼의 5시간 25분, 기혼의 4시간 22분보다 더 적은 3시간 4분으로 나온 결과로 보아, 실제 독신자들이 시간적인 여유로움을 만끽하는 '화려한 싱글'이기 보다는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이 매우 부족한 상태로 분석된다. 특히 다른 집단과 마찬가지로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시간이 가장 많아, 평균 3시간 4분의 전체 여가활동시간 가운데 평균 1시간 4분 동안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집단과 비교할 때 종교

활동, 관람, 스포츠 활동 등은 2분에서 9분정도 더 많이 사용하였지만, 교제활동이나 대중매체이용, 학습, 취미활동 등은 그 사용 시간량이 더 적었다.

혼자사는 독신 남녀의 시간사용 측면의 또 다른 특징은 가정관리시간이 많고, 특히 휴일의 가정관리 시간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미혼남녀가 평균 48분, 기혼남녀가 평균 2시간 47분 사용한 것과 비교해 평일에는 56분 사용하고, 휴일에는 2시간 6분 사용하고 있다. 혼자 사는 독신들은 일상적인 가정생활과 의식주 생활을 혼자 관리해야 하므로 그 시간사용량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지며, 특히 휴일에 가정관리 활동에 소비하는 시간량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조사에서 질문한 "다른 가족원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특별한 가족행사(생일, 명절 등)에서만 만난다'(43.8%)고 보고한 사실과 관련된다. 혼자 거주하는 독신자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의존하거나 연장되어 생활하기보다는 스

<표 7> 가장 즐겨하는 운동

운동	(명, %)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조깅, 맨손체조	48	30.0	24	15.0	15	9.4
에어로빅, 헬스	24	15.0	14	8.8	10	6.3
스포츠댄스	2	1.3	7	4.4	0	0.0
등산	17	10.6	26	16.3	27	16.9
농구, 축구 등 구기	12	7.5	7	4.4	9	5.6
승마, 사격, 서바이벌	0	0.0	0	0.0	2	1.3
스킨스쿠버, 수상스키 등 수상레포츠	0	0.0	1	0.6	1	0.6
스케이트, 스키	3	1.9	4	2.5	6	3.8
수영	14	8.8	14	8.8	11	6.9
재드민턴, 테니스, 탁구, 스퀘시	6	3.8	17	10.6	15	9.4
기타(골프 등)	24	15.0	7	4.4	8	5.0
결측치(missing)	10		39		56	

<표 8> 행동분류에 따른 독신의 시간사용 : 연령 차이 분석

행동분류	집단	전체 (평균)	t 검증				t 값
			30대		40대		
			평균	S.D.	평균	S.D.	
1. 일		7 : 34	7 : 31	243.44	7 : 42	236.91	- 0.26
2. 가정관리(평일)		0 : 56	1 : 00	55.94	1 : 08	55.32	- 1.56
	가정관리(휴일)	2 : 06	2 : 02	102.55	2 : 20	83.17	- 1.08
3. 교제 및 여가활동		3 : 04	3 : 08	133.62	3 : 01	136.47	0.23
① 교제활동(파티 등)		0 : 16	0 : 18	24.61	0 : 12	20.89	1.25
② 대중매체 이용(신문, 잡지, TV, 라디오)		1 : 04	1 : 03	68.88	1 : 09	64.01	- 0.45
③ 일반인의 학습		0 : 12	0 : 12	23.37	0 : 13	28.54	- 0.29
④ 종교 활동		0 : 12	0 : 11	57.47	0 : 14	19.59	- 0.53
⑤ 관람		0 : 11	0 : 12	23.37	0 : 13	28.54	- 0.29
⑥ 스포츠활동		0 : 23	0 : 23	22.38	0 : 25	26.61	- 0.49
⑦ 취미 및 그외 여가활동		0 : 20	0 : 21	36.80	0 : 18	25.63	0.63
⑧ 일이나 친목을 위한 음주		0 : 26	0 : 28	37.45	0 : 19	48.09	1.06

스로 생활을 관리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가정관리행동 측면에서 미혼이나 기혼 집단과 다른 특징은 남녀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미혼인 남자(다른 가족원과 함께 사는 미혼 포함)와 기혼 남자의 가정일에 대한 참여도가 여자에 비해 낮은 반면에 혼자사는 독신자들은 남녀 구분없이 가정일을 스스로 관리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교제 및 여가활동에 대한 남녀의 차이는 파티를 비롯한 교제 활동, 학습, 종교활동, 취미 및 그의 여가활동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독신 남성들은 여자에 비해 교제활동시간과 취미활동시간이 10분씩 더 많게 나타났으며, 독신 여성들은 남자에 비해 학습에 4분, 종교활동에 12분 더 많이 사용하였다. 독신 남녀 모두 다른 집단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여가활동보다는 소극적인 여가활동에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즐겨하는 운동에 대한 질문에서, 많은 연구대상자들(30%)이 조깅이나 맨손체조를 1순위로 제시하였다(표 7 참조). 그밖에 에어로빅 및 헬스(15%)나 골프 등(15%)의 활동을 즐겨한다고 응답하였다. 2순위와 3순위로 응답한 결과에서도 등산이나 조깅 및 맨손체조의 운동을 즐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예상외로 독신자들의 여가활동이나 스포츠활동이 적극적인 레포츠 활동보다는 집 주변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나 소극적 활동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독신의 생활양식은 성별에 따른 차이뿐 아니라 연령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여성개발원, 2002)고 한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독신의 삶에 대해 만족수준이 낮으며, 독신여성이 남성보다 삶에 더 만족한다(Benokraitis, 1993)는 것이다. 이에 시간사용에서도 30대와 40대의 연령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을 보면, 독신의 시간사용은 연령에 따라 유의하게 다르지 않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연령차이가 보고되지 않은 것은 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이 연령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즉 여성개발원(2002)의 청장년 1인 가구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이 고등학교 졸업자(33%)였고 연령에 따라 학력수준의 차이가 나타났던 것에 비해, 본 연구대상자인 30-40 독신들은 연령에 상관없이 90%이상이 대학이상의 교육수준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이들 독신의 일반적인 시간사용이나 여가활동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고, 비슷한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30-40대 독신남녀의 시간사용 및 여가활동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그들의 생활구조를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은 현재 1인 가구로, 싱글이지만 독신주의가 아니라 '미혼

(非婚)'인 상태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들은 다른 비교 집단에 비해 일에 몰두하는 시간량이 많았으며,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은 적었고 소극적인 여가활동에 치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혼 30-40대 여성집단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집단에 비해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시간(특히 휴일)이 많았으며, 가정관리 시간에 있어서 성차도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현재 우리 한국사회에서 독신집단은 자발적 독신이기 보다는 비혼족으로 분류되며, 일에 몰두하는 시간이 많고, 상대적으로 여가활동이 소극적 여가에 치중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독신남녀의 생활구조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은 집단의 비교분석을 위해 두 개의 다른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통계청의 조사방식은 시간일지법을 통해 기록된 시간을 after-code한 것이지만, 독신가구를 위한 본 조사는 각 활동영역에 대해 개방형 질문으로 시간량을 산출하였다는 차이점이 지적된다. 그러나 30-40대 연령대의 기혼 및 미혼 집단과 비교를 통해 혼자 사는 독신 집단의 시간사용 실태 및 생활구조를 이해하기 용이했다는 점을 밝혀둔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독신들의 생활구조를 기초로 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2가지 측면을 제안해 볼 수 있다.

첫째, 혼자 사는 독신들을 위한 상품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흔히 마케팅 측면에서 독신들을 '싱글족'이라 부른다. 이들은 소형화와 간단화를 추구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독신 남녀 모두 가정내에서 일정시간 가정관리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말에 혼자서 가정관리행동을 위한 시간투자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독신가정의 가정관리행동을 도와줄 수 있는 소형화되고 새로운 욕구에 부합된 제품기를 개발하거나 사회화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소량의 음식배달 서비스나 24시간 개점하는 식당, 소량의 세탁물을 세탁할 수 있는 소형 세탁기, 공간을 많이 차지 하지 않고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가전제품 등 다양한 상품개발이나 서비스 사회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독신들의 여가활동이 다른 미혼집단이나 기혼집단과 다르지 않게 소극적 여가활동에 치우쳐 있다는 점에서, 좀더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개발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독신 스스로 시간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독신들의 요구에 맞는 여가상품이 개발된다면 독신의 삶의 질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앞서 언급한 클럽메드(clubmed.co.kr)의 사례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둘째, 독신들의 시간관리와 시간계획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독신생활에 필요한 필수조건으로 자기에게 맞는 일과표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데, 독신들이 자발적인 시간관리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일'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중심의 시간계획이 이루어질 가능

7) 앞서 언급한 개전(個電) 제품 등의 개념을 도입해 볼 수 있다

성이 높다. 따라서 독신들의 시간사용 실태 및 구조를 이해하여 그들의 시간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특히 여가생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 및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접수일 : 2002년 9월 4일

심사완료일 : 2002년 12월 10일

【참 고 문 헌】

- 김애순(1994). 독신, 그 무한한 자유. 서울 : 고려원 미디어.
- 문숙재(1996). 생활시간연구. 서울 : 학지사.
- 손주희(1996). 혼자살면 뭐가 좋은데. 서울 : 책세상.
- 통계청(2000). 1999 생활시간조사(원자료).
- 통계청(2001).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 한경미·황덕순(1990). 주부의 여가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69-82.
- 한국여성개발원(2002).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 세계일보(2001. 5. 25). 전통적 핵가족제도 급속해체.
<http://www.segyetimes.co.kr>
- 주간조선(2002. 1. 10). 나홀로가 좋다...싱글가구 200만 돌파.
<http://weekly.chosun.com>
- 한국경제신문(2002. 2. 26). 인터넷 짝짓기 서비스 인기몰이.
<http://www.hankyung.com>
- Firestone, J. & Shelton, B. A. (1988). An estimation of effects of woman's work on available leisure time. *Journal of Family Issues*, 9(4), 478-495.
- www.cafe.daum.net/sololist
- www.clubfriends.co.kr
- www.clubmed.co.kr
- www.partizen.com
- www.saycupid.co.kr